

# 부산불교聯, 법인설립 초읽기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 태극정 대표이사) 비영리법인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연합신도회는 8월 24일 부산 다이나몬드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제1차 임시총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과 정관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사업계획 및 수익예산 심의 ▷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등에 관한 부의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법인 설립은 제2대 이윤희 회장의 취임 공약 중 대표적 공약사업이다. 이날 말 부산시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10월 중 법인 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윤희 회장은 “창립 3년차 재가불자 신형단체가 비영리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집행부의 결단력과 회원들의 원력이 집결돼 완만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단체 운영의 법적 책임과 재정 투명화·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임의 단체의 경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국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8월 24일 제1차 임시총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된다. 이에 비해 사단법인은 총회가 대표 의사기구가 돼 민주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법인으로 등록되면 자체감사뿐 아니라 해당관청의 감사를 받게 돼 공인화 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회계가 이뤄져 재정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한편 연합신도회는 부산의 대표적 승가단체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범어사 주지)의 산하기구로 태동했다.

독자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연합회와의 이념 공유 및 유기적 협조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장은 “정관 제1장 총칙 중 제3조에 보면 ‘승가단체인 부산불교연합회의 설립취지와 이념을 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총회를 통해 법인의 총재를 연합회장으로 두고, 원로 대덕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자문을 구해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솔직·화끈한 부산, 좌파냐 우파냐

부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시민의 정체성 찾기 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부산정체성바로세우기 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정각, 일불선교총정)은 8월 24일 코모도호텔에서 ‘국가 정체성과 지방 정체성: 부산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각 스님은 “부산의 정체성 바로세우기 운동에는 불교와 이웃종교, 보수와 진보, 좌파 우, 여와 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부산이 불교도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계가 앞장서서 통합과 번영을 위한 이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임대표 정각 스님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양승태 교수(이화여대, 정치철학전공), 김종명 부산일보 논설주간, 정진석



부산정체성바로세우기 시민운동연합은 8월 24일 '부산정체성찾기'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교(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왕선자 시인, 이성명 대표(부산국학운동시민연합)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양승태 교수는 “부산 사람들은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며 화끈하면 서로 직선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정체성 문제는 바로 부산 시민 특유의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자존 자주 자발 자결 자생으로 표출되는 시민정체성이 부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스며들고 시민적 주체역량과 결합할 때 지역의 잠재에너지가 발휘돼 시민정체성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돼 부산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 인도무용으로 우애 다진 부산 불교계와 인도문화원

주한인도대사관(대사 스칸드 란질타얏)과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흥법사 주지)은 국제문화교류의 시작을 기념하는 ‘인도 국립퓨전댄스’ 특별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주한 인도문화원과 흥법사는 8월 30일 MBC롯데아트홀에서 ‘인도국립퓨전댄스’ 특별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주한 인도문화원과 흥법사 주최, 한나래문화재단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국립급 현대무용가 닥샤 셰트(Daksha Sheth) 씨가 직접 안무한 현대무용을 선보였다. 닥샤 셰트 씨는 인도 전통춤 까닥(Kathak) 무용수로 출발해 현대 무용가 및 안무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포교사 배출 부산이 최고... 비결은 족집게 특강·모의고사

## 여여불교대학 부학장 효산 스님

여여불교대학(학장 정여, 범어사 주지)이 2년 연속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교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국에서도 서울 조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합격자가 많다. 내년에는 전국 1위까지도 기대해볼만하다. 부산의 작은 도심 포교당인 여여선원의 불교대학이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불과 5~6년 전까지 여여불교대학에서 가장 상급 과정인 ‘불교대학반’까지 진학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신행반’과 ‘기초교리반’ ‘불교대학반’을 나누고 차례로 진급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초심자와 구참 재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생활법문 위주의 강의를 듣는 게 전부였다. 법당 예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경전을 배우니, 《법화경》이든 《육조단경》이든 모르는 매한가지였다.

부학장 효산 스님(사진)은 “교육 과정이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00% 맞다고 확신은 못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누구나 포교사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여불교대학에서는 제16회 포교사교시에 41명이 응시해 35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제15회에는 28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했다. 수험생 평균연령은 48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교사교시에 도전하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까닭은 이곳만의 체계적인 포교사교시를 2달 앞두고부터는



육포프로그램에 있다.

대다수 사찰에서 불교대학이라고 지칭한 과목은 기초교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여불교대학에서는 기초교리과정을 불교대학이 아닌 신행반이라고 지칭한다. 신행반에서 10개월간 기초적인 사찰예절이나 초발심자를 위한 과정을 거친 후 기초교리반에서 (아함경)으로 1년 10개월의 학습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포교사교시준비를 위한 불교대학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

효산 스님은 “초심자에게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경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전반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며 “충분한 기간 동안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불교대학에 올라가서도 이해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포교사교시를 2달 앞두고부터는

족집게 강사로부터 특강을 받거나 하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4차례 모의고사도 치른다. 스승과 제자의 학구열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먹는다. 처음부터 포교사교시를 목표로 입학하는 이는 불과 20% 남짓. ‘신행반’으로 시작해 ‘기초교리반’, ‘불교대학반’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공부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스님은 “참선이든 염불이든 부처님의 근본교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스스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나아갈 수 있다. 바람에 갈대라 흔들리듯이 스님의 신봉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인 교설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그 속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단위 사찰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사라져간다. 유익한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수강생이 적으면, 감사비와 교재비 등을 따져보면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여선원은 단기적인 적자 예산을 감수하면서, 참불자를 기르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그 결과 100여 여여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이 여여선원에서 신행단체를 구성해 후학 양성과 봉사활동으로 선원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여여불교대학의 가장 큰 교육목표는 올바른 참 불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여불교대학은 현재 2011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051) 853-5486-7 박지원 기자

# 해운대구사암聯, 쌀 5톤 자비 보시

부산 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광진, 동해사 주지)가 8월 24일 해운대구청 청강실에서 쌀 5000kg 전달식을 기증했다.

회장 광진 스님은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잘 사는 지역으로 이름나 있는 반면, 빛과 그림자처럼 반송동이나 반여동, 재송동 등 여러 지역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다”며 “앞으로도 연 1회 백미, 연 2회 장학금 전달을 정례화해 아름다운 나눔으로 해운대구 곳곳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해운대구 관내 사찰 및 스님



들은 개별적으로 부처님오신날이나 명절을 전후해 쌀이나 생필품 등을 전달할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연합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5톤 분량을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원 기자

# 동명불원, 9월 15일부터 선지식 초청법문회

부산 동명불원은 9월 15일~10월 2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선지식 초청법문회를 15일 해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22일 설우 스님(정주 법인정사 선원장), 29일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초대대학원장), 10월 6일 응현 스님(부산 성암사 주지), 13일 도관 스님(김해 흥부암 주지), 20일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27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이 차례로 법좌에 오른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 대한국 불교 조계종

### 나눔 실천 승가회 회원 모집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실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창립일 : 불기 2555년 8월 17일

### 대한국 불교 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	회장	호산	정보
	고문	동원	
	고문	종천	
	이사	지상, 보득, 보광, 진성, 지유.	
	감사	보명	
	감사	법행	
	재무	현봉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60-21번지 3F 055)245-8209, 011-9540-8209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범패·작법무-  
**불교예술평대 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지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